중국 의약품 대표단 9월 방문

한-중 의약품 무역협력 실무위원회 구성키로 합의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풍홍장 회장이 2002년 9월 중국 의약품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 국내 제약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소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2월1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최준호)는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양국간 의약품 무역활동의 상호협력을 위해 무역협력협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로 최준호 회장은 양국간 의약품분야 무역협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6월 3-5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상해 CPHL원료의약품 국제전시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풍홍장 회장에게 의약품무역협력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으며, 2002년 7월15일 중국 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양 단체간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 양측이 합의 서명했다.

실무위원은 양국이 각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매년 최소한 1회 이상 북경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실무위원으로는 정승환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중국시장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중인 임원 상사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실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의약품 등록절차 등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업계의견을 모아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에서도 대 한국 한약재 수출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성영진/화학저널 BioChem 담당 취재기자>

<Chemical Daily News 2002/07/30>